

초기 순정만화와 소녀만화의 스토리 형식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Story Form of Early Shunjung Manhwa and Shojo Manga

김소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과

So-Won Kim(wish0411@gmail.com)

요약

한국의 순정만화와 일본의 소녀만화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순정만화와 소녀만화의 스토리 형식에 대한 연구이다. 순정만화는 1950~1960년대의 작품을, 소녀만화의 경우 잡지 “소녀 클럽”에 연재된 작품으로 그 연구 대상을 한정했다. “소녀 클럽”의 경우 창간호부터 폐간될 때까지 휴간 없이 발행된 거의 유일한 소녀잡지이며 일본 최초의 장편 소녀만화인 테즈카 오사무의 ‘리본의 기사’가 연재된 잡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순정만화와 소녀만화는 시공간적 배경, 이야기의 장르, 이야기의 길이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만화의 역사, 작가들, 연재 매체의 특징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만화 | 순정만화 | 소녀만화 | 일본만화 | 만가 |

Abstract

Korean *Shunjung Manhwa* and *Shojo Manga* have a unique characteristics. These genres have a close relationship each other. This study is story form of *Shunjung Manhwa* and *Shojo Manga*. In this article, a subject of study for *Shunjung Manhwa* is the works between 1950s and 1960s. I set limits to the works from “Shojo Club” the case of *Shojo Manga*. “Shojo Club” is the only girl’s magazine without suspend publication. Furthermore, that magazine is the one that Japan’s first *Shojo Manga*, Tezuka Osamu’s ‘Princess Knight’ was published serially. The results of my research work is that *Shunjung Manwha* has a remarkable difference on a spatio-temporal background, a genre of story, a length of story as compared with *Shojo Manga*. In addition, this difference is based on the social background, history of comics, authors, media published serially at that time.

■ keyword : | *Manhwa* | *Shunjung Manhwa* | *Shojo Manga* | *Manga* | Comic | Girl’s Comic |

I. 서론

순정만화와 소녀만화는 창작자와 수용자가 모두 여성이 중심이며 반짝이는 눈동자와 가늘고 긴 몸과 같은

독특한 인물표현과 불규칙한 칸나누기, 배경의 꽃 그림 등의 시각적 표현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르의 만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발달한 독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116)
접수일자 : 2015년 06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8월 17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06일 교신저자 : 김소원, e-mail : wish0411@gmail.com

특한 만화이기도 하다.

순정만화와 소녀만화²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바 있다[2].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통해 1960년대 일본의 소녀만화와 순정만화의 시각적 표현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순정만화의 표현 스타일은 일본의 소녀만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시각적 표현의 경우 소녀만화와 순정만화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스토리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순정만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순정만화와 소녀만화의 유사성은 강조되지만 그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순정만화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 소녀만화의 영향은 분명하나 그 영향이 어디까지였는지 알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순정만화와 소녀만화의 스토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각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스토리에도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혹은 이들 작품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초기 순정만화가 일본의 것을 차용하거나 베꼈다는 기존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정만화가 나름의 방향성과 특징을 가지고 발전했을 가능성을 고찰해 본다. 그리고 소녀만화와 순정만화의 관계성에 대해, 나아가 한국 순정만화의 출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초기의 순정만화와 소녀만화의 스토리 형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초기 순정만화의 이야기 구조에 대한 연구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만화작품이 상당히 제한적 이어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순정만화의 경우 1950~60년대의 자료는 상당히 희귀하며 단행본 1권에서 완결권까지 전권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초창기 만화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드문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의 참고작품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역사박물관과 한

국만화영상진흥원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이들 두 곳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역시 1950~60년대의 순정만화가 1권부터 완결권까지 보관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 연구 대상으로는 1, 2권 두 권 이상의 단행본이 소장되어 있는 작품으로 한정했다. 전체 작품의 일부만으로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적어도 이야기의 발단은 작품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1, 2권을 입수할 수 있는 작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 자료는 많은 만화 연구자들이 한국 최초의 순정만화로 꼽고 있는 한성학의 『영원한 종³』이 출판된 1957년부터 1969년까지의 자료로 한정했다.

일본 소녀만화의 경우 연구대상을 고단사(講談社)의 소녀잡지 『소녀 클럽(少女俱樂部)⁴』에 연재된 작품으로 한정했다. 이는 『소녀 클럽』이 1923년에 창간되어 1962년 휴간될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 중에도 휴간 없이 발행되었던 거의 유일한 소녀잡지⁵이고 소녀잡지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 부수를 보일만큼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이다⁶. 독자들의 주요 연령대로 소학교 고학년 부터 중학생 정도로 만화의 주 고객층이 되는 연령대로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 최초의 장편 소녀만화⁷인 테즈카 오사무(手塚治虫)의 「리본의 기사(リボンの騎士)」가 연재된 잡지라는 점에서 동시대의 다른 소녀잡지에 비해 연재만화의 변화가 한 발 먼저 시작된 잡지라는 부분도 빼 놓을 수 없다. 1962년 12월 휴간되기까

3) 박인하, 손상익, 한영주 등은 『영원한 종』을 완전한 형태의 한국 최초의 순정만화로 평가한다.

4) 제목은 후에 俱樂部를 가타카나로 표기한 『少女クラブ』로 변경된다.

5) 『소녀 클럽』과 함께 큰 인기를 누렸던 소녀잡지인 『소녀의 벗(少女の友)』, 두 잡지만이 유일하게 태평양 전쟁(1937년~1945년)중에도 계속 발행 되었다[3].

6) 창간호인 1923년 1월호의 발행부수는 6만7천부였고 가장 높은 판매 부수를 보였던 1937년 1월호는 발행부수가 49만 2천부였다[4].

7) 「리본의 기사」 이전에도 잡지에서 오랫동안 연재되는 작품은 있었지만 한회 한회로 이야기가 완결되는 유니버스 형태로 입체적인 등장 인물들에 의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일부 만화 연구자들 중에서 테즈카 오사무보다 앞서 활동한 마츠시타 이치오(松下井知夫)의 작품을 최초의 소녀만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마츠시타의 작품의 주인공 소녀들의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성격, 단순한 줄거리, 등장인물의 내면 묘사 등에 있어 장편 소녀만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5].

1) 박인하는 순정만화에 대해 순정만화 잡지에 연재되는 만화이고, 내레이션을 사용한 섬세한 심리 표현과 칸 나누기와 배경 연출을 통한 뛰어난 정서적 표현, 그리고 탐미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로 정의한다[1].

2) 일본의 '소녀만화(少女マンガ)'는 1950년대 이후 소녀잡지에 연재되던 만화를 소녀만화로 지칭하면서 정착된 표현이다.

지 『소녀 클럽』에 실린 만화는 단편을 포함해 200편이 넘는다. 200편이 넘는 작품들 중 연재 기간이 2년 이상인 장편 작품을 추려낸 후 이들 작품을 통해 초기 소녀만화의 스토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II. 본론

1. 순정만화의 등장

‘순정’이라는 단어가 한국의 출판물에서 가장 처음으로 쓰인 것은 1956년의 『만화세계』 10월호에 실린 김정과의 순정소설 「흰 구름 가는 곳」으로 보고 있다[6]. 잡지에 실린 김정과의 작품은 만화보다는 소설에 가까운 형태였다⁸. 당시에는 소녀들이 주인공인 슬프면서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순정’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의 소녀독자용 만화를 ‘순정만화’로 칭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만화 연구자들이 한국 최초의 순정만화로 꼽고 있는 것은 한성학의 『영원한 종』이지만 이 작품은 김정과 자신의 소설 맨 앞장에 ‘순정그림소설, 연재순정그림소설, 순정소녀소설’이라고 쓴 것처럼 직접적으로 ‘순정’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진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중간 중간 등장하는 소재목이 들어간 칸에 꽃 그림을 그려 넣는다거나 영옥과 정순이 친 자매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장미 조각이 새겨진 목걸이처럼 소녀 독자취향의 설정이 등장하는 점은 비슷한 시기의 명랑 만화나 어린이 만화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순정만화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작가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권영섭이다. 권영섭은 한성학 이후 엄희자의 등장 전까지 순정만화의 중요한 고리가 되는 작가로 평가할 수 있다. 엄희자에 의해 시각적 표현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순정만화는 그림 표현만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엄희자 이전의 작품에서는 독특한 시각적 표현 보다는 이야기의 내용에서 주요 독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권영섭은 『울밑에 선 봉선

이』에서 ‘봉선’이라는 소녀를 등장 시켜 소녀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같은 이름의 소녀가 등장하는 다른 내용의 작품들을 발표하기도 했다⁹. 어떤 의미에서는 순정만화 최초의 인기 캐릭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영섭의 이러한 작품은 ‘착한 소녀의 고난’이라는 초기 순정만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해 발행된 권영섭의 『오손이 도손이』의 경우 오손이와 도손이 두 형제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봉선이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가난 속에 놓인 형제는 현실에 순응하며 착하게 사는 봉선이와 달리 극단적인 반응으로 현실에 맞선다. 부자와 악한 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세상의 모순과 비리에 항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도 소녀가 주인공인 작품과 소년인 주인공인 작품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현실에 순응하고 선한 인생을 사는 소녀와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소년으로 나뉘는 것이다.

권영섭 이후 순정만화에 커다란 혁신이 일어난 것은 엄희자의 등장과 함께 이다. 한국 순정만화는 엄희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⁰. 순정만화의 전형적인 시각 표현형식을 사용한 한국 순정만화 최초의 작품은 엄희자의 데뷔작인 『행복의 별』이다. 커다란 눈과 3-4등신의 캐릭터에서 벗어난 길고 가는 몸, 긴 머리와 화려한 의상, 다양한 칸 나누기의 활용, 꽃 모티브를 사용한 배경 묘사 등의 특징적 표현을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당시의 순정만화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 준다. 엄희자가 데뷔하기 이전의 순정만화는 소년을 주요 독자로 하는 만화와 시각적 표현의 구분이 모호했다. 시각적 표현에서의 차이점이 거의 존재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작가들이 주인공을 소년으로 설정 하는가 소녀로 설정 하는가에 따라 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화인지 순정만화인지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희자가 데뷔작에서 선보인 혁신적인 표현은 이후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빠른 시간에 순정만화 전반에 이러한 변화가

8) 김정과의 만화는 그림이야기처럼 완전한 만화의 형태가 아니어서 오늘날의 순정만화 효시라기보다는, 과도기적 단계의 최초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7].

9) 『봉선이와 아나』(1961), 『봉선이라고 바둑이』(1961), 『바람아 불어라』(1963)등의 작품이 있다.

10) 만화연구가 백정숙은 한국 순정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60대 중반 엄희자의 등장부터 라고 보고 있다[8].

나타나게 된다. 엄희자를 비롯해 민애니, 장윤주, 송순히 등 여성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순정만화는 하나의 만화 장르로 확립하게 된다.

2. 초기 순정만화의 스토리

한성학의 작품이 발표된 1957년부터 1969년까지 초기 순정만화 작품들 중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역사 박물관과 만화영상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 가운데 1권과 2권이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자료 목록

발행	작품명	작가	출판사
1957년	영원한 중	한성학	불명
1960년	울밑에선 봉선이(전, 후)	권영섭	남훈사
1967년	푸른 등대 1 ~ 3권	권영섭	해동문화사
1967년	노래의 날개 1 ~ 3권	엄희자	새나라문화사
1969년	새벽중 3부 총 8권	엄희자	태창문화사
1966년	슬픔은 파도처럼 1 ~ 2권	박수산	문진사
1968년	울긋불긋 꽃대결 1 ~ 2권	박수산	대지문고
1969년	행주치마 1 ~ 3권	민애니	우주문화사

한성학의 『영원한 중』에는 세 명의 소녀가 등장한다. 순희는 전쟁으로 친부모를 잃었지만 전쟁에서 두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친딸처럼 길러진다. 순희는 거리에서 담배를 팔며 자신을 길러준 병든 어머니를 돌보지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만다.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순희는 영옥과 영옥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순희를 길러준 어머니가 실은 영옥의 생모이며 영옥에게는 전쟁으로 헤어진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옥의 요양을 위해 찾은 바닷가 마을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단 둘이 살지만 심성이 착한 정순과 사친회 회장의 딸로 전학생 영옥의 인기를 시샘하는 옥분이 등장한다. 결말에서는 영옥과 정순이 친 자매라는 것이 밝혀지고 정순은 노래의 재능을 인정받아 독창회를 개최하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지나치게 남발되는 우연과 매끄럽지 못한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긴 하지만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당시의 다른 만화들과는 뚜렷한 차별성이 있었던 작품이다.

『울밑에선 봉선이』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게 되면서 시작되는 봉선의 고달픈 삶을 그리고 있다.

권영섭의 1967년 작품 『푸른 등대』는 계모와 자매들의 구박과 심성착한 소녀라는 전래 동화적 설정에 마법의 거울이라는 상상력을 더한 작품이다.

엄희자의 『노래의 날개』는 피아노에 재능을 가진 소녀정희의 이야기이다. 사고로 팔을 다친 정희와 정희의 생모의 등장, 정희의 재활훈련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엄희자의 『새벽중』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1부인 『새벽중』이 4권으로, 2부 『맑은 새벽중』 1, 2권. 그리고 제 3부 『고요한 새벽중』이 1, 2권, 총 8권으로 완결된 작품이다. 제주도의 농장주의 딸인 은주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고아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소녀 라미가 주인공이다. 이들 주인공 소녀에게 다양한 시련들이 닥치지만 사건 사고가 해결되고 모두가 화해하며 이야기는 완결된다. 결말에서는 너무나 쉽게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다소 작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

박수산의 『슬픔은 파도처럼』은 고아나 다름없는 남매의 이야기이다. 어린 남매가 돈을 벌기위해 서울로 떠난 엄마를 찾아 서울로 상경하지만 수중에 지니고 있던 돈과 엄마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잃어버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박수산의 또 다른 작품 『울긋불긋 꽃대결』은 고아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권선징악 스토리에 동화적 색채를 입힌 작품이다.

민애니의 『행주치마』는 요리할 때 착용하면 놀랍도록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더라도 낫게 하는 ‘행주치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이다.

이와 같이 몇몇 작품의 줄거리를 정리한 결과 ‘순정만화’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서사장치가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순정만화의 ‘순정’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작품은 1960년대 초 권영섭의 작품이 아닐까 한다. 이후의 작품들에도 고아 소녀와 그녀들의 고생담이 주된 테마인 작품들이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이 소녀의 고난으로 존재하는 작품은 드물다. 특히 다양한 판타지적 설정을 갖춘 작품들도 많았다. 순정만화 속에는 생각 보다 넓고 다양한 세계가 존

재했음을 알 수 있다.

3. 소녀만화의 등장

순정만화의 경우 장르성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매체가 불분명한 반면 소녀만화는 소녀잡지에 실리던 소설과 서정화(抒情畫¹¹)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일본 최초의 소녀잡지는 1902년에 창간된 『소녀계(少女界)』이다¹². 이후 『소녀세계(少女世界, 1906년 창간)』 『소녀의 벗(少女の友, 1908년 창간)』 『소녀화보(少女畫報, 1912년 창간)』 『소녀클럽(少女俱樂部, 1923년 창간)』 등 다양한 잡지가 창간되어 소녀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들 잡지는 소설과 삽화, 일러스트, 영화, 음악, 요리, 수예 등 소녀취향의 기사와 시, 소설,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30년대 초부터 이러한 잡지에 4칸 만화가 실리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는 기승전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짧은 만화라고 할 수 있는 4칸 만화가 한 두 작품 실렸던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4칸 만화가 좀 더 긴 길이로 변형된 6칸 만화와 8칸 만화도 꾸준히 실리고 1~2 페이지 정도의 짧은 스토리 만화가 실리는 등 점차 소녀잡지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지면이 늘어나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 물자 부족으로 분량이 크게 줄었던 잡지들의 출판이 정상화 되고 잡지의 판형도 커지면서 연재만화의 분량도 점차 늘어나게 된다. 수십 페이지에 불과했던 잡지분량이 300페이지 정도로 늘어나고 잡지에 실리는 연재만화의 수도 증가했으며 작품 한편의 분량도 확대되게 된다. 1920~30년대 잡지의 판매량을 좌우하는 것이 삽화가와 소설가였다면 1950년대 이후 잡지의 인기는 연재만화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최초의 장편 소녀 만화로 평가 받는 것은 테즈카 오사무(手塚治虫)의 「리본의 기사」이다. 1953년 『소녀 클럽』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 작품은 이

후의 소녀만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 소녀만화에서 꽤 빈번하게 등장하는 ‘남장여성’ 캐릭터의 시작이었으며 연극적인 연출과 장편 서사를 가진 최초의 소녀만화였다. 「리본의 기사」의 히트 이후 소녀잡지 연재만화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한 회(회)의 연재 분량이 8페이지 가량인 장편 연재만화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잡지에서 만화의 분량 또한 늘어나서 1957년에는 잡지의 4분의 1정도가 만화로 채워지며 장편 연재만화가 정착하게 된다. 만화 페이지의 증가에 따라 만화의 스토리 구성 또한 풍부해지면서 기존의 개그 만화 일색이었던 모습에서 벗어났다.

4. 초기 소녀만화의 스토리

『소녀 클럽』의 변화는 일본 소녀만화의 흐름 혹은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소녀잡지를 대표하는 인기를 끌었고 『소녀 클럽』을 바탕으로 일본 최초의 소녀만화 전문지인 『주간 소녀프렌드』가 창간되었기 때문이다¹³.

그러면 『소녀 클럽』에 연재된 작품들 중 2년 이상 연재된 스토리 만화 작품만을 추려 이들 작품의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재 기간이 2년 이상 지속된 작품으로 그 대상을 한정 한다. 이는 연재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작품의 경우 기승전결의 긴 서사를 보여주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리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재된 작품의 경우 독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은 작품이며 이후의 소녀만화에 일정 부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녀 클럽』에 1953년 1월부터 1962년 12월 사이에 연재된 작품들 중 연재 기간이 2년 이상인 스토리 만화는 다음과 같다.

표 2. "소녀 클럽" 연제작 목록

연재 기간	작품명	작가
1950.4~1953.12	치치레상(ちちれさん)	요코야마 류이치(横山隆一)
1952.1~1954.12	에도의 쿠리짱(お江戸のくりちゃん)	오노데라 슈후(小野寺秋風)
1953.1~1955.12	리본의 기사	테즈카 오사무

11) 화가 후키야 코우지(落谷虹児)가 명명한 것으로 소녀잡지의 소설 삽화와 컬러 일러스트 등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소녀를 대상으로 그린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⁹.

12) 일본 최초의 소녀대상 상업 잡지는 1902년 금홍당서적(金港堂書籍)에서 발간된 『소녀계(少女界)』이다. 『소녀계』 이전에 ‘소녀’를 타이틀에 차용한 잡지는 1890년 1월 오사카의 춘우사(春雨社)에서 출판된 『소녀원(少女園)』이 있었으나 소규모로 출판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지는 못 했다¹¹.

13) 고단사에서 1963년 1월부터 『소녀 클럽』을 대신해 일본 최초의 주간소녀만화 전문지인 『주간 소녀프렌드(週刊少女フレンド)』를 창간한다.

5.12		
1953.11~1955.12	사슴 피리의 천사(しか笛の天使)	우시오 소우지(うしあそうじ)
1954.1~1955.12	무리짱(むりちゃん)	요코야마 류이치
1954.1~1955.12	오사게짱(おさげちゃん)	시오타 예지로(塩田英二郎)
1956.1~1957.12	쿠라야미 공주(くらやみ姫)	미즈야마 시게루(水山シゲル)
1956.1~1957.12	메다카짱(めだかちゃん)	야마네 아오오니(山根青鬼)
1957.1~1962.3	후이친씨(フイチンさん)	우에다 토시코(上田としこ)
1957.12~1959.12	은의 꽃잎(銀の花びら)	미도리카와 케이코(緑川圭子)글, 미즈노 히데코(水野英子)그림
1959.11~1962.2	오하나짱(おハナちゃん)	아카츠키카 후지오(赤塚不二夫)
1960.1~1961.12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母の名をよべば)	하루나 세이치(春名誠一)글, 호소카와 치에코(細川知英子)그림
1960.1~1962.8	초저녁달의 메아리(夕月の山びこ)	미도리카와 케이코 글, 히가시우라 미츠오(東浦美津夫)그림

「치치레상」은 요코야마 류이치의 개그만화로 2~4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매회 짧은 에피소드를 그려내는 만화이다. 초기 소녀만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녀의 이름을 제목으로 차용한 개그 만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10살 내외의 어린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통해 웃음을 주는 만화로 연속적인 스토리 구성을 갖기 보다는 단편적인 ‘웃음’코드에 집중하는 만화이다.

「에도의 쿠리짱」 역시 일상 속에서 등장하는 웃음을 소재로 한 만화이다. 다만 제목처럼 시대가 에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지만 매회 완결되는 에피소드를 그린 개그만화라는 부분에서 당시의 주류였던 ‘웃음을 주는 만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작품이다.

「리본의 기사」는 일본 최초의 장편 소녀만화로 평가 받고 있는 작품으로 기승전결이 뚜렷한 장편 서사와 함께 남자영웅, 천사, 왕자와 공주 등 판타지풍의 스토리로 그 때까지의 소녀만화와는 다른 세계관을 보여 주었다¹⁴. 특히 공주로 태어났지만 천사의 장난으로 남자

와 여자의 마음 모두를 갖게 된 사파이어가 왕실의 후계자로 여자인 신분을 감추고 살게 되는 ‘남장 여자’ 캐릭터는 이후의 많은 소녀만화에 영향을 주었다¹⁵.

우시오 소우지의 「사슴 피리의 천사」는 일본의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얀 사슴의 뿔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전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무리짱」 역시 요코야마 류이치 작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이른바 생활 속의 웃음을 그린 ‘생활 개그’ 만화라 할 수 있다. 요코야마 류이치의 전작인 「치치레상」의 남동생 ‘무리짱’을 등장시킨 작품이다.

「쿠라야미 공주」는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아름답지만 큰 비밀을 가진 주인공 소녀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그린 장편 만화이다. 이렇게 일본 전통의 공주가 등장하는 소녀 만화는 1950년대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화려한 전통의상의 소녀들이 등장하고 이야기의 내용은 개그만화에서 슬픈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메다카짱」 역시 이른바 생활 만화¹⁶로 볼 수 있다. 2페이지의 짧은 만화로 연재 된 작품으로 ‘메다카’라고 불리는 어린 소녀를 주인공으로 소녀의 가족과 친구들과 등 주변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밝은 내용으로 그린 만화이다. 당시 소녀만화의 주류의 하나가 바로 이렇게 소녀의 이름을 제목에 드러내는 ‘○○짱’ 혹은 ‘○○상’과 같은 제목의 작품들이다. 이름은 언어 유희의 맥락에서 지어진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사람 이름의 고유명사이기 보다는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가져온 애칭인 경우가 많다¹⁷.

다양한 인물들이 얽히며 소설만으로도 그림만으로도 맛볼 수 없는 틀림없는 만화만의 독자적인 힘을 가진 상상력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 (중략) 「리본의 기사」는 소녀만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화려하게 전개 되었다[12].’

15) 일본 최초의 장편 소녀만화의 주인공이 남장 여자인 설정에 대해 오시야마 미치코(押山美知子)는 ‘그때까지의 1화 완결 형이 아니라 연재 형식의 장편 만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가 독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외모와 개성에 임팩트가 있는 히로인이 필수불가결한 것 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연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당연히 스토리성이 풍부한 여자 주인공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13].

16) ‘이처럼 없애 버리기 어려운 생활의 냄새, 가난의 그늘이 독자인 소녀들의 일상과 겹쳐 있던 것으로 인해 넓은 의미로서의 생활만화가 다수를 점유하게 된다[14].’

17) ‘에도의 쿠리짱’의 쿠리의 경우 밤(栗)을 뜻하며 ‘메다카’는 송사리,

14) ‘악마와 천사, 왕자와 공주 등이 등장하며 펼쳐지는 판타지 세계는

「후이친씨」는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 대 성주의 어린 도련님 리초의 놀이 친구가 된 성문지기의 딸 후이친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스토리뿐 아니라 작화에 서도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오랫동안 연재되며 인기를 끌었다.

「은의 꽃잎」은 1955년에 데뷔해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작가로 활발히 활동했던 미즈노 히데코¹⁸가 당시 몇몇 작품에서 스토리를 담당했던 미도리카와 케이코와 함께 작업한 작품으로 오빠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고 있던 소녀와 소녀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과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미즈노 히데코는 테즈카 오사무의 영향을 받은 화풍과 판타지를 갖춘 스토리로 인기를 얻었던 작가이다¹⁹. 미즈노 히데코는 1950년대 말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 작가군²⁰보다 한 발 앞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녀 독자들에게 알린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하나짱」은 아카즈카 후지오의 작품으로 생활 속의 유쾌한 웃음을 그린 만화이다. 아카즈카 후지오는 훗날 「천재 바가본(天才バカボン)」이 크게 히트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가의 한 명이 되는 작가로 데뷔 초기에 소녀잡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1950년대에는 소녀잡지에서 활동을 했던 신인 남성 작가들 중 일부는 이후 소년만화를 통해 크게 성공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²¹. 여성작가들의 수가 적었기도 하지

만 소년잡지에 비해 판매량이 적었던 소녀잡지의 경우 소년잡지보다 신인이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 이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은 호소카와 치에코가 그림을 담당한 작품이다. 당시의 소녀들에게 동경의 세계로 그려진 발레는 1950년대 말부터 발레리나인 주인공 소녀를 통해 만화에 빈번히 등장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은 발레와 함께 ‘엄마와 단둘이 사는 심성 고운 딸이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 내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내용을 함께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이 시기 소녀만화에서 자주 반복되던 서사의 하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초저녁달의 메아리」는 ‘출생의 비밀’과 그 비밀을 해결하기 위한 소녀의 여행과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이와 같이 『소녀 클럽』에 연재되었던 작품들은 당시 일본 소녀만화의 대표적인 서사구조를 띤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의 주제를 크게 나누면 웃음, 판타지, 눈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같은 시기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2~3년의 주기에 따라 등장한다. 2~3년의 주기로 인기작품의 경향이 변하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작품에서는 시각적 표현이 소녀 만화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1950년대의 초기 소녀 만화에서는 등장인물의 설정 자체에서 작품의 정체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소녀만화는 소년만화를 그리는 남성작가들이 함께 창작했고 소녀잡지와 소년잡지에 실린 동일 작가의 작품에서 시각적 표현의 차이점을 찾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편 서사보다는 1회로 이야기가 완결되는 만화가 많았기 때문에 서사적인 특징으로 소녀만화만의 특징을 보여주기 어려웠다. 결국 당시의 소녀만화가 소녀만화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설정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품이 제목에서부터 주인공이 여자임을, 그리고 ‘○○짱²²’으로 불리는 귀여운 여자 아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자들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 아이를 주

‘하나’는 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18) 1939년 야마구치 현 출생. 테즈카 오사무의 작품을 보고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 당시 유일하게 신인 공모를 하고 있었던 잡지 『만화소년(漫畫少年)』에 투고를 하던 중 심사를 맡았던 테즈카 오사무와 『소녀 클럽』 편집자의 눈에 띄어 만 15세의 나이로 『소녀 클럽』 1955년 8월호를 통해 데뷔하게 된다[15].

19) 테즈카 오사무의 만화를 계기로 만화가가 되었고 정식 데뷔한 후에는 테즈카 오사무를 비롯해 당시 『만화소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몇몇 작가들이 거주했던 공동주택인 토키와장(トキワ荘)의 유일한 여성 작가이기도 했다. 미즈노 히데코의 작품에 대해 요네자와는 ‘테즈카 오사무의 「리본의 기사」로 시작된 스토리 소녀만화였지만 그런 판타지 로망의 세계를 이어 받은 작품은 적었다. (중략) 그러나 테즈카 스쿨의 유일한 여류작가 이었던 미즈노 히데코에 의해 그 흐름은 확립되기에 이른다.’라고 서술한다[16].

20) 미즈노 히데코의 데뷔로부터 2년 후인 1957년에 데뷔한 마키 미야코(牧美也子)와 와타나베 마사코(わたなべまさこ)는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살린 소녀 만화로 인기를 끌었고 이들의 활동으로 소녀만화는 여성 작가들의 활동 영역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후 1960년대 초 주간 소녀만화 전문지가 창간되면서 소녀만화는 장르적 특징을 확립시키게 된다.

21) 「내일의 조(あしたのジョー)」의 치바 테즈야(ちばてつや), 「은하철도 999(銀河鐵道999)」의 마츠모토 에이치(松本零士), 「가면 라

이더(畫面ライダー)」의 이시노모리 쇼타로(石森章太郎) 등의 작가들도 데뷔 초기에 소녀잡지에서 활동했었다.

22) ちゃん은 이름 혹은 별명 뒤에 붙여 부르는 것으로 친근한 사이이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주로 쓴다.

인공으로 하는 것으로 ‘소녀’만화 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한다. 개그 만화가 인기를 얻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작품이 늘어나고 1960년대에는 길고 뚜렷한 서사구조를 가진 작품들이 인기를 얻게 된다.

III. 결론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순정만화와 소녀만화 초기 작품의 스토리 형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생각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스토리가 존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토리의 특징에 있어서 순정만화와 소녀만화의 유사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시각적 표현과 달리 스토리 형식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보였다.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공간적 배경, 등장인물의 설정, 작품의 장르, 작품의 길이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시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순정만화의 경우 작품 시작에서 배경을 ‘먼 남쪽의 섬나라’라고 명시한 『울긋불긋 꽃대궐』을 제외하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은 독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일치했다. 작품에서 뚜렷하게 배경이 되는 지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주인공들의 이름과 묘사된 배경은 1960년대의 대한민국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녀만화의 경우 주인공들이 독자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소녀들로 설정되기는 하지만 배경으로 묘사되는 시공간은 에도시대(에도의 쿠리짱), 유럽의 어느 왕국(리본의 기사), 전국시대(사슴 피리의 천사, 쿠라야미 공주), 중국(후이친씨) 등으로 작품마다 다양하다. 흔히 ‘생활만화’로 분류되는 제목에 주인공 소녀의 이름을 차용한 『치치레상』, 『메다카짱』 등의 작품은 대부분 작품이 연재될 당시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공간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주인공 소녀와 등장인물들 또한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한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주인공인 소녀들은 대부분 10대 초반의 학생으로 작품 속에서 학교에 다니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고양이 따름없는 상황에 놓인 주인공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묘사는 생략되어 있다. 반면

소녀만화는 시공간적 배경에 맞는 인물이 등장한다. ‘생활만화’의 경우 학교생활이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당시 독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에 동시대의 일본인 소녀로 묘사된다. 그러나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의 경우 그에 맞는 시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작품의 장르를 살펴보면, 순정만화는 많은 작품이 현실세계와 다르지 않은 시공간을 배경으로 ‘착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푸른 등대』나 『울긋불긋 꽃대궐』, 『행주치마』처럼 작품에 따라 판타지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작품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고아 혹은 편부, 편모 가정의 심성 고운 소녀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견뎌내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순정만화의 경우 한 작품이 다양한 장르적 특징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마법의 거울이나 신비로운 힘을 지닌 행주치마, 다른 존재로 변신하는 사람 등 판타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작품들에서도 고아, 혹은 계모와 살고 있는 소녀가 등장한다. 그러나 소녀만화의 경우 장르적 특징이 중첩되지 않는다. 판타지, 모험물, 혹은 생활 개그 등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작품들이 장르적 특징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이야기의 길이는 순정만화의 경우 거의 장편이지만, 소녀만화의 경우 단편 혹은 유니버스 형식이 주를 이룬다. 순정만화의 연구대상이 된 모든 작품은 길게 이어지는 장편 서사를 가지고 있다. 긴 호흡을 가진 이야기의 특징상 등장인물들에게는 다양한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고 갈등은 해결되고 다시 생겨나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소녀만화의 경우 한 회 한 회로 종료되는 유니버스 스타일의 작품이 많았다. 연구의 대상이 된 13편의 작품 중 반 이상의 작품인 7편의 작품이 매 회 짧은 에피소드로 그려지는 유니버스 만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니버스 만화는 거의가 생활 속의 소소한 웃음을 담은 작품 이었다.

시각적 표현에 있어 거의 흡사했던 것에 비해 이야기의 내용에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회 문화적 배경과 일본 만화의 역사, 그리고 작가들과 작품이 실리던 매체의 차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정만화가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많았던 것은 독자들에게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순정만화의 내용 자체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많은 고아가 생겨났고 나라는 가난했다. 독자들을 작품에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화의 내용이 자신의 이야기이거나 적어도 내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것이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정만화는 연구대상 전 작품에 ‘극복’의 코드가 있다. 가난을 극복해야 하고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처럼 주인공 소녀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어른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근대사회로 이행된 이후 긴 식민지배에선 벗어났지만 곧 처참한 전쟁을 치렀다. 경제는 어려웠고 독자들의 대다수는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빈곤의 극복이 국민 모두의 사명이던 시절이었다. 초기 많은 순정만화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며 복을 받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그리고 있다. 일본도 전쟁과 패망을 경험했다는 부분에서 한국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3년 동안 삶의 터전 안에서 동족끼리의 전쟁을 겪었던 한국과는 다르다.

요네자와는 1920년대 초부터 소녀나 여자를 주요 독자로서 하는 읽을거리에서 볼 수 있는 슬픈 이야기의 전통에는 ‘여성의 자립과 성(性)’이라는 것이 철저히 배제되었던 시대에 테마는 한정되는 것[17]이라고 평가했다. 권영섭의 작품인 『오손이 도손이』와 『울밑에 선 봉선이』에서 볼 수 있듯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도 소년과 소녀의 슬픔과 고난 극복방법은 전혀 다르다. 수동적이고 선택해야 하는 소녀상이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초기 소녀만화에 다양한 장르가 존재했던 것은 초기 소녀잡지에서 활동하던 작가들 중 다수가 소년만화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년만화는 전쟁직후 단행본의 형태로 일찍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²³ 50년대 말 주간 소년만화잡지가 창간되는 등 소녀만화에 앞서 발전했다. 소녀만화의 혁신을 이끈 테즈카 오사무 역시 소년만화계에서 독보

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가였다. 본격적인 순정만화의 출발이 엄희자 라는 신인 여성작가에 의해서였던 한국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탐정물, SF, 액션 등 소년 취향의 작품을 창작하던 작가들이 소녀잡지 만화도 병행했기 때문에 소년만화와 소녀만화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순정만화가 장편이었고 소녀만화는 단편, 움니버스, 장편이 함께 존재 했었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체의 차이에 있다. 일본은 오랜 전통을 가진 소녀잡지에 만화가 실리면서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1960년대 초 주간소녀만화 전문지가 창간되었다²⁴. 단행본의 경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가지 이야기만 수록된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긴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가 얹혀 있어야 하며 독자들을 다음 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 독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잡지의 경우 여러 작품이 동시에 연재된다. 많은 독자를 동시에 만족 시켜야 하는 부담은 훨씬 적다. 웃음이나 눈물이나 모험이나 한 가지 역할을 해 내면 되는 것이다. 여러 작가와 여러 작품의 협업으로 잡지 한 권이 엮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독자들은 잡지에 실린 여러 작품 중에 취향에 맞는 작품을 골라 읽으면 되는 것이니 한 작품에 많은 것을 한 번에 담아낼 필요는 없었다. 비교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순정만화와 소녀만화 특징 비교

	순정만화	소녀만화
캐릭터	한국의 평범한 소녀가 많다. 다양한 고난아래 놓이지만 극복해 낸다.	생활 개그만화의 경우 독자와 비슷한 연령의 평범한 소녀이지만 그 이외의 장르의 경우 보다 다양하게 설정된다.
즐거리	착한 소녀의 등장 → 보호해 줄 어른의 부재, 가난, 질병, 사고 등의 고난 발생 → 고난의 극복	생활만화의 경우 소소한 일상을 웃음으로 결론짓는다. 생활만화 이외의 작품의 경우 특별한 운명의 소녀가 모험을 겪으며 운명을 극복하는 내용이다.
장르	‘착한 소녀의 고생담’을 기본으로 마법과 초자연적 현상이 등장하는 판타지가 더해지기도 한다	판타지, 모험, 개그 등 뚜렷한 장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배경	1960년대의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13작품 가운데 7작품이 다양한 시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6작품은 동시대의 일본이다.

23) 이들 단행본은 판매보다는 대여를 목적으로 제작, 유통되었다. 테즈카 오사무도 소녀잡지에 만화를 연재하기 이전에 이러한 단행본으로 작품을 출판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24) 고단사(講談社)에서는 1962년 12월 『소녀클럽』이 폐간되고 1963년 1월 일본 최초의 주간 소녀만화 전문지 『소녀 프렌드(少女フレンド)』가 창간된다.

순정만화의 가장 큰 특징인 시각적 표현이 소녀만화와 흡사하다는 것에서 순정만화는 오랫동안 소녀만화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스토리의 전개방식과 특징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들 차이점은 각각의 작품들이 창작되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만화계의 특징, 선행했던 소설, 만화와의 관계, 매체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터 생겨났음을 알 수 있었다. 순정만화의 출발은 일본 만화의 이식이었지만 이후 순정만화는 나름의 개성과 이유를 가지고 당시의 독자들의 요구에 맞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박인하, *박인하의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 - 누가 캔디를 모함 했나 -*, 살림, pp.27-33, 2000.
 [2] 노수인, *한국 순정만화와 일본 소녀만화의 관계 연구: 순정만화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0.
 [3] 今田繪里香, 「少女」の社會史, 頸草書房, p.14, 2007.
 [4] 今田繪里香, 「少女」の社會史, 頸草書房, p.15, 2007.
 [5] 押山美知子, “『リボンの騎士』における “少女マンガ” の型-松下井知夫作品との比較-”, *マンガ研究*, 日本マンガ學會, Vol.14, pp.45-49, 2008.
 [6] 박인하, *박인하의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 - 누가 캔디를 모함 했나 -*, 살림, p.38, 2000.
 [7] 손상익, *한국만화 통사 하*, 시공사, pp.292-293, 1998.
 [8] 백정숙, “소녀 세계의 창을 연 엄희자”,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p.175, 1995.
 [9] 山中夕起子, “露谷虹兒、さまざまな「抒情畫」のかたち-パリ時代、アニメーション映畫『夢見童子』について-”, *Core Ehtics*, Vol. 5, pp.371-372, 2009.
 [10] 米澤嘉博, *戦後少女マンガ史*, ちくま文庫, pp.24-27, 2007.
 [11] 浜崎廣, *女性誌の源流-女の雑誌*, *かく生まれ, かく*

競い, かく死せり-, 出版ニュース社, pp.71-72, 2004.
 [12] 米澤嘉博, *戦後少女マンガ史*, ちくま文庫, p.52, 2007.
 [13] 押山美知子, *少女マンガジェンダー表象論 -<男装の少女>の造形とアイデンティティ*, 彩流社, pp.11-12, 2007.
 [14] 米澤嘉博, *マンガで読む「涙」の構図*, NHK出版, p.74, 2004.
 [15] <http://www5f.biglobe.ne.jp/~hideko/profile.html>
 [16] 米澤嘉博, *戦後少女マンガ史*, ちくま文庫, p.98, 2007.
 [17] 米澤嘉博, *マンガで読む「涙」の構図*, NHK出版, p.37, 2004.

저 자 소 개

김 소 원(So-Won Kim)

정희원



- 2005년 2월 : 교토세이카(京都精華)대학교 스토리만화과(예술학사)
 - 2008년 3월 :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교 첨단종합학술연구과(학술학석사)
 - 2011년 9월 :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교 첨단종합학술연구과(학술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과 강사
- <관심분야> : 만화콘텐츠